

조선후기 왕실 연향용 주기(酒器)의 종류와 운용체계*

-의궤의 기용도(器用圖) 분석을 중심으로-

구 혜 인**

목 차

- I. 서론
- II. 조선후기 연향의궤 기용도 내 주기의 비중
- III. 연향용 주기의 종류와 성격
- IV. 연향용 주기의 운용체계과 의미
- V. 결론

국문초록 | 이 글은 조선후기 왕실 연향용 주기가 구성된 배경, 종류와 조형 그리고 소비와 수급체계를 살펴본 논문이다. 현전하는 유물이 드문 연향용 주기를 조사하기 위해 조선후기 의궤 기용도를 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시 공예문화에서 주기가 갖는 성격과 의미를 파악했다. 주기는 왕실 연향을 상징하는 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왕실 연향 절차에서 진작하는 순간이 의례의 핵심이고 왕실 구성원의 위치를 예를 통해 드러내는 중요한 기회이자 수단이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조선후

* 이 논문은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20 정기학술대회 《조선시대 의궤와 공예품》(2020년 11월 23일 개최)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具惠仁,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 방문학자, 공예사 전공,
human180@hanmail.net

투고일: 2021. 4. 29. 심사완료일: 2021. 6. 3. 게재확정일: 2021. 6. 13.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0..133>

기 연향의례 속 기용도의 시작은 조선전기 국가전례서의 준작도설에서 찾을 수 있었다. 또 의례 속 주기 중에서 잔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명칭의 수가 총 34개에 이를 만큼 다양하다. 각각의 명칭 안에는 기종, 구성, 재질, 장식 등의 풍부한 정보들이 조합되어 있다. 그 중에서 서배와 옥잔은 잔의 위계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연향용 주기의 공급과 사용양상에 대해 살펴본 결과 내하, 호조, 상의원 그리고 주원 등에서 주기가 조달되었다. 그리고 참석자의 위계에 따라 주기의 종류, 재질, 색 등이 엄격하게 구분되는데, 이에 비해 다정과 시접반의 기물들은 참석자 간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대조된다.

핵심어 | 조선시대, 연향, 의례 도설, 주기, 서배, 옥잔, 옥병, 은병, 내하

I. 서론

조선시대 연향에는 풍성한 음식, 아름다운 예악, 정교한 기물들이 동원된다. 연향의 주인공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올리는 잔치는 전례(典例)에 바탕을 두면서 동시에 당대(當代)의 풍습이 반영되어 설행되었다. 연향 의식의 정점은 바로 연향의 주인공에게 술을 바치는 진작(進爵)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¹⁾ ‘진작’은 축수의 바램을 담은 술잔을 주인공에게 올리는 과정과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로, 연향을 준비한 자의 정성과 효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절차였다. 이 과정에서 술을 담은 주기들은 단순히 술을 담은 용기의 역할이 아닌 연향의 목적을 조형화한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왕실에서는 연향용 주기를 정밀하게 엄선되어 사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조선왕실 연향에서 사용한 주기에 주목하고자 한다.²⁾ 그

-
- 1) 유교의례에서 술은 단지 향락을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정성과 공경의 예의를 돈독히 하는 신성한 매체였다. 이희재, 「유교의례에서의 술」, 『종교연구』 54, 한국종교학회, 2009, 143쪽.
 - 2) 조선시대 연향용 주기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윤정, 「朝鮮初 酒器 조형 변화와 원인」, 『강좌미술사』 37, 2011; 윤효정, 「조선전기 백자 규화배 葵花盞의

중에서도 다수의 연향의례가 현전하는 조선후기에 집중하여, 이 시기 왕실 주기의 구체적인 종류, 구성,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고 나아가 연향용 주기의 공급과 사용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조선후기 왕실 공예문화에서 주기가 갖는 성격과 의미를 이해해보겠다.³⁾

조선시대 왕실 의례에서 다양한 주기가 사용되었고 잔, 병, 호 등 주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유물들도 다수 현전한다. 하지만 조선왕실 연향용 주기라고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은 드문데, 그 이유는 원래부터 왕실의 보기(寶

조형과 성격, 『역사와 담론』 68, 호서사학회, 2013; 송인희, 「조선 17세기 전반의 ‘假畫龍樽’, 『미술사논단』 38, 한국미술연구소, 2014; 정희정, 「조선후기 의례도설과 기록화를 통해서 본 연향 연구-음식상 배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5; 同著, 「대한제국기 진연의 의례음식상 공간연출과 정치적 함의, 『미술사학연구』 287, 한국미술사학회, 2015; 구혜인, 「조선시대 주준(酒樽)용 백자용준(白磁龍樽)의 문양과 왕실 의례와의 관계, 『미술사학보』 48, 미술사학연구회, 2017; 윤효정, 「조선시대의 왕실 주기, 혜호배: 기록과 유물을 통한 실체와 조형의 복원, 『미술사논단』 47, 한국미술연구소, 2018; 이아름, 「1809년 진찬의례의 진작 기물 연구, 『규장각』 5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이아름·이은주, 「1828년과 1848년 순원왕후의 진작기물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85, 조선시대사학회, 2018; 이아름, 「19세기 궁중연향의 진작 과정과 기물 연구, 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 박사학위 논문, 2019. 윤효정, 「조선전기 官窯白磁의 器皿體系와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0 등.

- 3) 조선의 국가전례서에서 가례는 중국에 대한 의례, 조하, 책봉, 혼례, 향음, 연향 등에서 행하는 의례로, 가례가 행해진 이후나 혹은 가례를 진행하는 의식 중 일부로 연향을 올린다. 연향은 규모와 성격에 따라 회례연, 풍정, 진연, 진찬, 진작처럼 규모와 격식을 갖춘 예연에서부터 소작, 곡연처럼 작은 규모의 연향까지 다양하다. 정희정은 예식을 갖춘 잔치라는 의미에서 예연이라는 용어를 쓴 바 있다.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 민속원, 2001, 43~103쪽; 정희정, 위의 논문, 11쪽 재인용. 더불어 주기는 그 범주에 따라 협의(狹義)와 광의(廣義)로 구분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주기는 잔, 병, 주자, 준(尊), 작(勺) 등 술을 담거나 옮길 때 사용하는 기명들이고, 넓은 의미의 주기는 기명류 외에 각종 주기들을 올려놓는 가구나 상보자기 등을 아우른다. 이 논고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협의의 주기 그 가운데 잔, 병, 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器)로 그 수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나 소용처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물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왕실 연향용 주기로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외세침략과 국권침탈 그리고 근현대기 전쟁으로 인해 왕실의 주기들이 산실되어 버린 요인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왕실 연향용 주기라는 사용처(조선왕실)와 용도(연향용 주기)가 분명한 공예품을 분석하기 위해 왕실 기록물을 분석대상의 주자료로 택하였다. 즉 국가전례서 가례서례(嘉禮序例)의 준작도설(尊爵圖說), 조선후기 연향 의례에 실린 기용도(器用圖), 연향의례 속 음식과 예기(禮器)들의 진설내용이 실린 ‘배설(排設)’의 기록들 그리고 기용도 속 주기와 비교할만한 현존유물들을 조사하여 본 글의 몇 가지 논의들을 풀어가고자 한다.⁴⁾ 논의를 진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후기 연향의례에 기용도가 실리게 된 배경과 그 안에 주기의 수록 양상을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조선전기 『세종실록』 「오례의」나 『국조오례의』 「가례서례」에 실린 준작도설에서 주기의 종류와 비중을 살피고, 조선전기 전례서 속 주기의 구성과 특징이 조선후기 연향의례 속 기용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파악하겠다. 이를 통해 조선왕실 전례서 도설과 의례 기용도에 기록된 주기의 양상과 의미를 통시적으로 살필 수 있고, 더불어 조선후기 연향의례 기용도에 선별되어 수록된 주기의 원류와 체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향용 주기 중 잔, 병, 주자를 중심으로 각각의 종류와

4) 국가전례서 중 가례에 실린 준작도설은 본래 왕실 혼례에 사용되는 의례기를 의미한다. 이는 가례 준작도설에 실린 기물의 종류가 조선왕실 혼례행사를 기록한 가례도감 의례에 실린 기물의 종류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전례서의 준작도설이 반드시 좁은 의미의 가례, 즉 혼례용 기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조선후기 연향의례의 기용도설에 실린 기물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연향의례 중 기용도설이 수록된 의례들인 10건의 의례들을 분석할 예정이며, 대한제국기의 연향용 주기들도 조선후기의 연장선 상에 있기 때문에 대한제국기 연향의례도 아울러 살펴보겠다. 조선후기와 대한제국기 왕실용 주기에 관한 비교분석은 후속 연구를 기약하겠다.

성격을 분석하겠다. 연향용 주기의 대표적인 기종인 잔, 병, 주자의 종류를 조선후기 의궤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살피고, 각 기종의 특징을 파악하여 왕실 연향용 주기의 성격을 추출한다. 셋째, 연향용 주기의 운용체계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기용도에 등장한 다양한 도설 속 주기들이 조달되었던 공급 경로를 살피고 각 기물들의 사용자(대왕대비, 왕, 왕비, 왕세자, 왕세자비 이하 왕실 가족, 신료들)를 파악하여 조선후기 왕실 연향 주기의 공급과 사용방식을 고찰하겠다. 그리고 동일한 연향에서 사용된 다기(茶器)와의 사용 양상을 함께 비교하는 작업을 병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조선후기 왕실 연향용 주기가 갖는 왕실 공예품의 문화적, 사회적 의미와 특징을 조망해보겠다.

Ⅱ. 조선후기 연향의궤 기용도 내 주기의 비주

1. 조선전기 국가전례서 제기도설·준작도설의 주기

조선후기 연향의궤의 기용도에 실린 주기의 양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조선후기 의궤의 기용도는 조선전기부터 간행된 국가전례서의 도설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추론하는 바, 먼저 국가전례서 제기도설과 준작도설에 실린 주기의 수록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⁵⁾

5) 조선시대 왕들은 행사 이후에 의궤를 간행하여 행사의 전모를 기록하고 그림을 함께 실어 생생한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조선 중기까지 기명 그림들은 이후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조선 중기까지 의궤의 글 사이에 작은 그림을 넣는 방식으로 제작하였고, 이와 같은 삽도체제가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일부 의궤의 경우 그림들을 별도로 묶어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한 경우도 있는데, 국가전례서의 제기도설이나 준작도설과 유사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이 등장한 가장 이른 의궤는 숙종대 편찬된 『종묘의궤』이고 그 이후의 『사직서의궤』, 『경모궁의

조선초기부터 간행된 국가전례서에는 조선후기 의례의 기용도처럼 각종 기명들이 그림으로 실려 있는데, 주로 길례의 제기도설과 가례의 준작도설에 실려있다. 조선 초기 첫 국가전례서는 1474년(성종5)에 편찬한 『국조오례의』이나, 『국조오례의』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실록』 「오례의」에 제기도설과 준작도설의 체제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전기에 제작된 『세종실록』 「오례의」와 『국조오례의』 그리고 그 이후의 국가전례서들에는 의례용 기물(祭器, 尊爵, 樂器, 兵器, 射器, 明器), 복식(冠服, 喪服), 의장(鹵簿), 가마 등에 관한 그림과 설명인 도설이 실려 있다. 구체적인 종류를 살펴보면 길례 서례 중에는 조례기척도, 제기도설, 찬실도, 악기도설, 악현도, 관면도가 실려 있고, 가례 서례 중에는 노부, 여연, 악기, 악현도, 준작, 배반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국가전례서의 다양한 도설들은 후손들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왕실 의례를 영구적으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 전범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갖고 제작되었고, 도설의 양식과 구성들이 대부분 대한제국기까지 유지된다.

그 중 길례의 제기와 가례의 준작은 의례를 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물들이며 의식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특정 기물의 배치, 기물을 든 참여자의 동선, 기물을 이동시키고 사용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절차가 의주이며, 이 의주들이 모여서 의례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제례와 가례의 의식 가운데 술을 올리는 의례가 핵심을 차지하고

례』에서도 『종묘의례』의 체제를 따른다. 연향의례에서 위의 체제를 따른 가장 이른 사례는 『원행을묘정리의례』이며, 『원행을묘정리의례』의 도식 체계는 이후의 연향의례의 전범이 되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은순, 「조선후기 의례의 관화도식」, 『국학연구』 6, 2005; 유재빈, 「『園幸乙卯整理儀軌』圖式, 그림으로 전하는 효과와 전략」, 『규장각』 5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등. 국가전례서 도설과 의례의 기용도 체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유재빈의 연구(2018)에서 언급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의례의 기용도 체계가 나타난 원류로 조선 초 국가전례서의 도설과의 연관성에 대해 심화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있다는 사실을 염두한다면, 제기도설이나 준작도설에서 주기가 차지하는 큰 비중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표 1).

조선시대 국가전례 속 제기도설과 준작도설의 용도 및 기종별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제기도설의 경우 주기는 14건으로 제기도설 전체 중 45%에 해당한다. 주기 중 술잔인 1종류의 작(爵)이 있고, 술과 물을 담는 10종류의 항아리들이 있다. 또 술을 따르거나, 옮기거나, 술항아리를 덮는 용도의 제기가 3종류 있다. 제상 위에 진설되는 제기들 중 작은 그 크기가 제일 작고, 진설되는 개수도 반기(飯器), 찬기(饌器), 갹기(羹器)에 비해 적다. 그래서 제상을 진설하면 제상 면적의 대부분을 반기, 찬기, 갹기들이 차지한다. 하지만 제례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가장 작은 그릇인 작을 신위에 올리는 의식이며, 제례의 등급과 성격도 어떤 종류의 술을 누구에게 몇 차례 올리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⁶⁾ 이와 같은 이유로 제기도설 중 주기의 종류와 개수가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⁷⁾

국가전례서 속 가례의 그릇으로는 주기를 위주로 구성된 준작도설이 실렸고, 실제 준작도설 속 주기(협의)의 비율은 전체의 87.5%에 달해 제기도설보다 더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물론 준작도설이 주기를 실은 도설이므로 주기의 높은 비중은 당연하나, 풍성하고 다양한 음식을 진설하는 의례인 가례의 도설을 주기 위주로 구성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기도설의 기명 구성을 통해 제사에는 주기 뿐 만 아니라 반기, 찬기, 갹기, 세정기,

6) 구혜인, 「조선시대 왕실 제기(祭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153쪽.

7) 국가전례서 준작도설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 초 주기의 재질이나 조형에 대해 논한 선행 연구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김윤정, 앞의 논문, 2011; 구혜인, 앞의 논문, 2017; 윤효정, 앞의 논문, 2020. 위 논문들에서는 국가전례서의 준작도설 속 주기의 조형과 의미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조선후기 의례 기용도와와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 것은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전례서 준작도설을 분석하겠다.

조리기 등이 골고루 포함되고 의례적 의미가 있으나, 가례에는 기명의 핵심이 주기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조선초기 국가전례서에서 길례와 가례에서 사용되는 주기의 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국가전례서 도설 중 많은 부분을 주기에 할애했다는 사실과 특히 가례에서는 주기의 제도를 중시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조선시대 국가전례서 제기도설·준작도설 중 주기 종류와 비율

구분		용도	종류	종류	
길례	제기도설	주기	작(작점)	1	주기합계 (비율) 14(45%)
			계이, 조이, 가이, 황이, 희준, 상준, 착준, 호준, 대준, 산뢰	10	
			규찬, 떡, 용작	3	
		반기	보, 례	2	
		찬기	변, 두, 조	3	
		갱기	등, 형,	2	
		세정기	세뢰, 세	2	
		조리기	양정, 우정, 시정, 부, 환, 비, 난도	7	
		기타	비	1	
가례	준작도설	주기용 가구	대주정, 소주정	2	
		주기	은열자, 은대병, 금봉병, 금대병, 금소병, 은소병	6	주기합계 (비율) 14(87.5%)
			금우(우대),	1	
			백자청화주해	1	
			쌍이청옥잔(도금잔대), 쌍이운록청옥잔(도금잔대), 쌍이갈호청옥잔(도금잔대), 쌍이청옥잔(도금잔대), 쌍이초엽금잔(선지도) 금작(점)	6	
				총합 16(100%)	

더불어 가례의 준작도설을 길례의 제기도설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술잔의 종류로, 제기도설에서는 한 종류의 작만 있는 반면 준작도설에서는 여섯 종류의 잔이 있다. 즉 준작도설에서 잔의 종류가 더 다양하다. 제기도설에서 잔이 '작'이란 한 종류뿐이라는 사실은 국가 제사에서는 술잔의 종류가 술잔을 받는 대상을 차등화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 대상에 속하는 종묘대제에서부터 소사에 이르기까지 왕실의 유교식 제사인 정제(正祭)에서는 작이란 술잔을 공통적으로 사용한다.⁸⁾ 반면 준작도설에서 술잔이 여섯 종류라는 사실은 잔이 단순히 술을 담는 용도 외에도 가례의 성격이나 참여자의 위계를 나타내는 용도로도 사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주기의 재질로, 제기도설 속 주기의 재질은 주로 유기, 초죽, 목제가 중심을 이루지만, 준작도설 속 주기의 재질은 금, 은, 옥, 백자의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제기도설 속 주기는 합금동 이외에 주로 질박한 재질로 제작된 반면, 준작도설 속 주기는 상대적으로 고급 재질로 제작되었다. 제사나 연향 모두 정성껏 준비하는 의례이나 제사는 중국 고례에 근거하여 의도적으로 검박한 성격의 재질을 사용한 것에 비해 연향에서는 풍습을 반영하여 고급재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제기도설의 주기는 각 기물마다 단일한 재질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다수이나, 준작도설의 주기 중 특히 잔은 각 기물마다 옥잔과 도금잔대처럼 옥과 도금은이란 두 종류의 재질을 조합하여 하나의 기종을 이룬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준작도설 속 주기의 특징들이 그대로 조선후기 의례 기용도 속 주기들의 특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조선후기 왕실 연향 기용도의 주기는 조선후기에 새롭게 조성된 기종과 구성이 아니라 조선전기부터 이미 정립된 왕실 가례용 주기로부터 연유되었다는 점을 조선전기 국가전례서의 준작도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8) 구혜인, 위의 논문, 90~91, 153~154쪽.

2. 조선후기 연향의궤 기용도 내 주기 비중과 의미

현전하는 조선후기 연향 의궤 중 정조대 『원행을묘정리의궤』는 기용도 체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의궤이다(도 1).⁹⁾ 이 의궤부터 ‘도식(圖式)’ 이하 기용도라는 항목 아래 각종 기명그림들이 목판화 기법으로 실리기 시작했다. 『원행을묘정리의궤』 이전에도 연향 의궤들이 설행되고 의궤가 편찬되기는 했으나 기용도를 별도로 신지 않았다.¹⁰⁾ 따라서 현전하는 연향의궤 중에서 연향용 주기를 도식체제로 실은 사례는 『원행을묘정리의궤』가 시기적으로 가장 이르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정조는 이 날의 행사를 의궤 외에도 의궤도나 병풍으로도 제작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채색본으로 실린 주기들은 의궤 기용도 속 주기들을 이해하는데 좋은 비교자료가 된다(도 2). 이처럼 『원행을묘정리의궤』는 기존의 편차체계, 간행방식을 혁신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변화의 일면이 기용도설의 제작과 별도편집이었다.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기용도를 통해 조선전기 국가전례서 속 가례용 주기의 종류와 성격이 조선후기 실제 연향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조는 원행을 거행하면서 모든 것을 절약하고 간소화하지만, 그 중에서도 진찬의 찬품과 기품은 풍부하게 하여 경사를 빛내고 정성에 부응하게

9) 『원행을묘정리의궤』는 1795(정조19)년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어머니 혜경궁 홍씨(1735~1815)를 모시고 부친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의 묘소인 顯隆園을 참배하고 華城 行宮에 행차하여 어머니 회갑 잔치를 치른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원행을묘정리의궤』의 목차를 비롯하여 내용구성, 기재방식, 도식체제 등이 이전 의궤와 비교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유재빈은 원행을묘정리의궤의 도식에 관한 연구에서 의궤 도설의 편집 원리가 관리자보다는 독자의 시각으로, 행사의 재수행보다는 행사가 기억되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편집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유재빈, 앞의 논문, 2018, 200~20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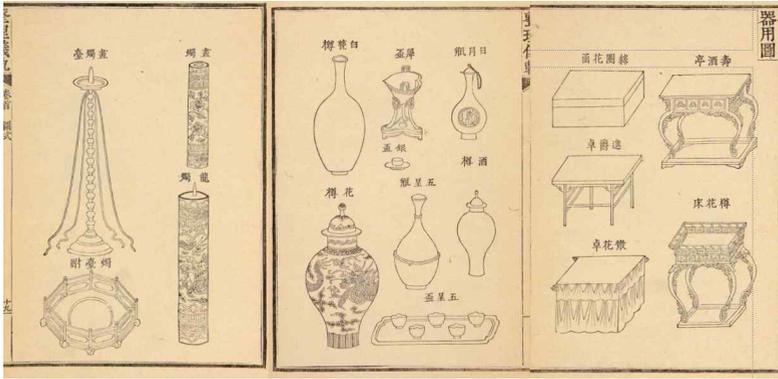
10)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연향 관련 의궤는 1600년 3월에 인목왕후 김씨에게 올린 연향 기록인 『풍정도감의궤』이다. 『풍정도감의궤』를 비롯해, 『(숙종기해)진연의궤』(1719), 『(영조갑자)진연의궤』(1744), 『수작의궤』(1754)에는 기용도가 실리지 않았다.

준비하도록 명하고 있다. 8일간의 원행 과정에서 올린 일상식은 검박함을 표상하여 지나치지 않게 준비했으나, 진찬만큼은 풍부하게 하고 그 가운데 기물도 잘 갖추라고 한 것이다.

“園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은 모두 절약하고 간략하게 하는 것이 자궁의 뜻을 깊이 헤아려 따르는 것이지만, 올해의 慶禮는 進饌이 중요하니, 饌案과 器品은 반드시 물품과 의식을 풍부하게 하여 경사를 빛내고 기쁨을 표하는 나의 정성에 부응하게 해야 할 것이다. 내게 바치는 것은 자궁께 바치는 찬안과 같이 할 수 없으니, 그릇은 10여 개를 넘지 않도록 하여 다만 모시고 식사하는 예만 갖추게 해야 할 것이다.”

찬안과 더불어 기물에 대해 언급한 정조의 태도는 연향의례에서 기용도설이 최초로 별도 편집되어 권수(卷首)에 등장하는 변화로 이어졌다고 보인다. 환궁 이후에 10권으로 이루어진 의례를 완성하면서 정조는 권수 도식에 반차와 기물에 대한 각종 도식을 실었다고 밝혔으며, 한편이 완성될 때마다 직접 수정하였다고 하였다(도 1).

환궁한 뒤에 儀軌堂上 李晩秀와 整理堂上 尹行恂 등에게 儀軌를 편찬하게 하였으니, 모두 10권이다. 한 편이 완성될 때마다 직접 수정하여 몇 달이 걸려서야 책이 완성되었다. 卷首는 班次와 器物에 대한 각종 圖式이고, 1권에서 5권까지는 傳教·樂章·致詞 등 宣揚과 관계된 글과 節文·品物에 관한 규정이고, 6권에서 9권까지는 慈宮이 탄신일을 맞은 데 대한 慶賀와 景慕宮을 알현했을 때의 拜謁에 관한 기록, 本宮의 躋享, 溫泉행궁에 관한 조항이다. 首卷에서 5권까지는 原編이고 6권에서 9권까지는 附編이다. 鑄字所에 넘겨서 이해에 주조한 整理字로 인쇄하였다.



도 1. 기용도, 『원행을묘정리의궤』(1795), 도식



도 2. 기용도, 『화성원행의궤도』, 조선후기, 국립중앙박물관

[표 2]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주기 관련 기록 종류(도식·찬품·기용·배설)

권	구성
卷首	摠目
	擇日, 座目, *圖式
卷之一	錄, 傳敎, 筵說, 樂章, 致詞, 御製, 御射, 傳令, 軍令(附嚴時刻操令)
卷之二	目錄, 儀註(附操式), 節目, 啓辭
卷之三	目錄, 啓目, 狀啓, 移文, 來關, 手本, 甘結
卷之四	目錄, 饌品, 綵花, 器用, 排設, 儀仗, 盤纏, 掌標, 駕轎, 舟橋, 司僕定例
卷之五	目錄, 內外賓, 參宴老人, 陪從, 留都(附守宮留陣留營留駐), 工伶, 塘馬(附斥候伏兵), 榜目, 賞典, 財用
附編一	誕辰慶賀: 目錄, 傳敎, 筵說, 樂章(附詩), 致詞, 箋文, 儀註, 節目, 啓辭(附啓目), 饌品, 綵花, 器用, 排設, 內外賓, 進饌時堂郎員役, 賞典
附編二	景慕宮展拜: 目錄, 傳敎, 筵說, 儀註, 節目, 啓辭, 賞典
附編三	永興本宮躋享: 目錄, 傳敎, 筵說, 御製, 頒敎文, 儀註, 啓辭(附上疏), 狀啓
附編四	溫宮紀蹟: 目錄, 傳敎, 筵說, 御製, 啓辭, 狀啓, 賞典

어머이를 위해 연향용 기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이를 직접 도식으로 남기려는 정조의 관심과 노력은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기용도로 구현되었다. 연향용 주기의 모습은 권수의 도식에 실려 있으며, 권 4의 찬품, 기용, 배설에는 주기들의 종류, 구성, 진설방식, 조달과 사용방식을 두루 살펴볼 수 있어 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표 2). 구체적인 종류를 살펴보면, 수주정, 준화상, 사권화함, 진작탁, 산화탁, 일월병, 주준, 서배, 은배, 오정병, 백자준, 화준, 오정배, 화축, 용축, 화축대, 축대부로 이루어진 총 18건의 기물 그림들이다. 그 중 준이 2개(주준, 백자준), 병이 2개(일월병, 오정병), 잔이 3개(서배, 은배, 오정배)로 구성된다. 즉 기용도 중 그릇의 형태를 띤 기명은 오로지 주기만으로 수록된 셈이며, 주기보다 더 많은 수로 진설되었을 찬기는 기용도에 실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보면 연향에서는 많은 물품이 동원되나 그중에 극히 일부 기물만 선별되어 ‘기용도’란 명칭의 도설로 실리며, 기용도 중 주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부분이다.

[표 3] 조선 후기 연향의례 기용도의 주기

(* 괄호 속 협의의 주기 개수/기용도 전체 개수, 비율 의미, 괄호 안 잔대도 별도 개수로 셈)

개최연도, 의례명	구분	의례 내용/기용도 내 주기의 종류 및 비중
1630(인조8) 풍정도감의례	기록	선조 계비이자 대왕대비인 인목왕후 김씨에게 올린 연향의 제반기록
	기용도	없음
1719(숙종45) (숙종기해) 진연의례	기록	숙종의 기로소 입소를 경축하는 의미로 올린 진연의 제반기록
	기용도	없음
1744(영조20) (영조갑자) 진연의례	기록	영조의 기로소 입소와 숙종비 인원왕후의 57번째 생일을 경축하는 의미로 올린 진연의 제반기록
	기용도	없음
1754(영조41) 수작의례	기록	영조가 왕세손(정조)의 간청으로 설행한 수작연의 제반기록
	기용도	없음
1795(정조19) (원행을묘) 정리의례	내용	정조가 자궁과 함께 현릉원에 행행할 때 거행한 연향과 혜경궁 홍씨의 단일 진찬례의 제반기록
	기용도	수주정, 준화상, 사권화합, 진작탁, 산회탁, 일일병, 주준, 서배, 은배, 오정병, 백자준, 오정배, 화준, 화축, 용축, 화축대, 축대부 *7/17(41%)
1809(순조9) 기사진표리 진작의례	기록	혜경궁 홍씨 관례 주갑을 경축하는 진찬의 제반기록
	기용도	은교의, 은각답, 향좌야, 진작탁, 인안, 노연상, 찬안, 수주정, 사권화합, 주정상, 사권화합, 준화상, 향로, 향합, 화축, 용축, 축대, 축대부, 은일일병, 옥작, 금절, 금작, 금절, 주준, 은작, 금잔, 금절, 은잔, 은절, 은봉병, 은병, 오정배, 용준, 유작, 유절, 자병 *18/36(50%)
1827(순조27) 자경전진작 정례의례	기록	순조와 순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일을 기념하는 진작례의 제반기록
	기용도	은교의, 은각답, 향좌야, 진작탁, 보안, 노연상, 찬안, 수주정, 사권화합, 주정, 치사상, 준화상, 향로, 향합, 화축, 용축, 축대, 축대부, 용준, 옥병, 옥배(도금대), 도금배(도금대), 은반루금선, 은이선, 은작(銀勺), 은도금별야병, 은병, 옥배(도금대), 사준, 유작, 은저, 은영롱시, 은소야, 준대, 추철, 인철, 내도금은배, 유병, 내도금은난배, 사병, 오정배, 은시절 *20/45(44%)

1828(순조28) (순조무자) 진작의례	기록	순원왕후 탄신 40세를 경축하는 진작례의 제반기록
	기용도	좌의자, 표피방석, 용평상, 공작삽병, 향로, 향합, 보안, 노연상, 향좌야, 향환지, 진작탁, 수주정, 사권화합, 치사안, 주정, 준기, 다정, 찬안, 조각대원반, 나전고죽원반, 팔면과합상, 과합반, 과합(개구), 시접반, 화촉, 용촉, 축대, 축대부, 용준(개구), 옥병(개구), 은도금별야병(개구), 백동병(개구), 옥배(은도금대), 은도금도화배(은도금대), 은도금선지두배(개구, 은도금대), 옥배(은도금대), 은도금대란배, 은소란배, 은반루금선(개구), 은이선, 은다관(개구), 은다종(개구), 은시접(개구), 은작(銀勺), 은영통시, 은소야, 은저, <u>은정배</u>, 추자, 인자, 유병, 양각등, 사준, 유작 *21/58(36%)
1829(순조29) (순조기축) 진찬의례	기록	순조의 40세와 즉위 30년을 기념하여 올린 두 차례의 진찬의 제반기록
	기용도	용교의, 답장, 용평상, 보안, 향로, 향합, 노연상, 향좌야, 향환지, 향로상, 진작탁, 수주정, 치사안, 주정, 사권화합, 다정, 준화상, 찬안, 주철대원반, 준기, 홍심후변팔우반, 사우왜소반, 시접반, 축대, 축대부, 용촉, 화촉, 용준, 옥병, 은도금일월병, 은병, 은도금은도화배(도금대), 옥도화배(도금대), 옥배(옥대), 옥배(도금대), 문호배(문호대), 문호배(도금대), 도금선지두배(도금대), 내도금은안배, 내도금은배, 옥배(도금대), 은다관, 은다종, 은시접, 은반루금선, 은이선, 은작(銀勺), 은영통시, 은소야, 은저, 추자, 인자, 목단화준(개구), 향발, 이박, 선도반, 선도탁, 사준, 유병, 유작, 유오정배, 양각등, 유리등 *29/71(40%)
1848(헌종14) (헌종무신) 진찬의례	기록	대왕대비 순원왕후 육순과 왕대비 망오를 경축하는 진찬의 제반기록
	기용도	은교의, 답장, 보안, 찬안, 향로, 향합, 노연상, 향좌야, 향환지, 진작탁, 수주정, 사권화합, 치사안, 주정, 다정, 준화기, 왜반, 조각대원반, 시접반, 용촉, 화촉, 축대, 축대부, 용준, 은도금일월병, 은병, 옥배(도금대), 옥배(도금대), 옥도화배(도금대), 서배(도금대), 내도금은배, 은작(銀勺), 은저, 은영통시, 은다관, 은다종, 은시접, 은영통시, 은소야, 추자, 인자, 유리홍, 유병, 유오정배 , 양각등, 사등 *15/50(30%)
1868(고종5) (고종무진) 진찬의례	기록	익종비 신정왕후 조씨의 주장을 경축하기 위한 진찬의 제반기록
	기용도	은교의, 답장, 보안, 찬안, 향로, 향합, 노연상, 향좌야, 향환지, 진작탁, 수주정, 사권화합, 치사안, 주정, 다정, 준화기, 왜반, 조각대원반, 시접반, 화촉, 용촉, 축대, 축대부, 용준, 은도금일월병, 은병, 옥병(회류대), 옥배(포도엽대), 도금은배(은도금조이배), 서배(도금대), 민수배, 은작(銀勺), 은소야, 은저, 은영통시, 은다관, 은다종, 은시접, 은배, 추자, 인자, 유리등, 유병, 유오정배 , 양각등, 사등 *17/50(34%)

1873(고종10) (고종계유) 진작의례	기록	신정왕후 왕대비책봉 40주년을 기념하는 진작의 제반기록
	기용도	기용도 없음
1877(고종14) (고종정축) 진찬의례	기록	익종비 신정왕후 조씨의 칠순을 경축하기 위한 진찬의 제반기록
	기용도	은교의, 답장, 보안, 찬안, 향로, 향합, 노연상, 향좌아, 향환지, 진작탁, 수주정, 사권화합, 치사안, 주정, 다정, 준화기, 왜반, 조각대원반, 시접반, 용축, 축대, 축대부, 용준, 은도금일월병, 옥병(희류대), 은병, 옥배(은도금대), 은도금배(은도금대), 옥배(포도엽대), 은도금배(은도금대), 서배(은도금대), 은도금민수배(은도금대), 은작(銀勺), 은배, 은영통시, 은다관, 은다종, 은시접, 은저, 은소아, 추자, 인자, 유리등, 유병, 유오정배, 양각등, 유리옥우화등 *21/54(38%)
1887(고종24) (고종정해) 진찬의례	기록	익종비 신정왕후 조씨의 팔순을 경축하기 위한 진찬의 제반기록
	기용도	은교의, 답장, 보안, 찬안, 향로, 향합, 노연상, 향좌아, 향환지, 진작탁, 수주정, 사권화합, 치사안, 주정, 다정, 준화기, 왜반, 조각대원반, 시접반, 용축, 축대, 축대부, 용준, 은도금일월병, 옥병(희류대), 은병, 옥배(은도금대), 수문호배(은도금대), 옥배(은도금포도엽대), 은도금배, 은도금배(은도금대), 서배(은도금대), 은도금민수배(은도금대), 은작(銀勺), 은배(銀杯), 유작(鑲勺), 은소아, 은영통시, 은저, 옥배(옥대), 옥배(옥대), 은시접, 은다관, 은다종, 옥다종, 화류대, 유병, 유리등, 추자, 인자, 은오정배(유대), 유오정배(유대) *30/63(47%)
1892(고종29) (고종인진) 진찬의례	기록	고종 보령이 망오에 이르고 즉위한 지 30주년이 된 것을 경축하기 위한 진찬의식의 제반기록
	기용도	용교의, 답장, 용평상, 표피방석, 찬안, 보안, 향로, 향합, 향좌아, 향환지, 노연상, 진작탁, 수주정, 치사안, 주정, 다정, 준화기, 사권화합, 조각대원반, 시접반, 축대, 용축, 축대부, 용준, 은도금일월병, 옥병(희류대), 은병, 옥배(은도금대), 수문호배(은도금대), 옥배(은도금포도엽대), 은도금배, 은도금배(은도금대), 서배(은도금대), 은도금민수배(은도금대), 옥배(옥대), 옥배(은대), 은시접, 은작(銀勺), 유작(鑲勺), 은소아, 은영통시, 은저, 은다관, 은다종, 은다종, 화류대, 유병, 유리등, 양각등, 인자, 추자, 은오정배(유대), 유오정배(유대) *29/64(45%)

『원행음묘정리의궤』의 기용도 체제는 순조대의 연향의궤(4건), 현종대의 연향의궤(1건), 고종대의 연향의궤(8건) 기용도의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 조선후기의 의궤에서 기용도가 등장하는 의궤(10건)들에 수록된 주기 종류와 구성을 정리하면 앞의 표와 같다(표 3). 『원행음묘정리의궤』를 시작으로 기용도에 실린 기물들의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더불어 주기의 수도 늘어났다. 표를 통해 기용도에서 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0%~50% 내외로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기종의 종류와 구성 그리고 시기별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순조기축진찬의궤』에 이르러 기용도 속 기물이 63점에 이르게 되었고, 이 가운데 27점이 주기에 해당하였다. 시기에 따라 주기의 조형, 장식, 구성이 변하기는 하지만 기용도에서 주기가 차지하는 개수 그리고 약 40% 내외에 이르는 높은 점유 비율은 정조대부터 고종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조선전기의 국가전례서 준작도설에서부터 시작된 주기의 구성체계가 조선후기의 연향용 의궤 속 기용도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고, 왕실 가례에서 주기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후기 연향의궤 기용도 속 주기는 국가전례서 준작도설 속 주기의 전체적인 구성, 재질, 조합, 문양들과 밀접한 양상을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조선후기 연향용 주기는 조선전기에 제작된 국가전례서 속 준작도설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또 『원행음묘정리의궤』는 국가전례서의 준작도설처럼 연향을 위한 주기를 도식 내 기용도라는 항목 아래 별도의 그림으로 실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 대부분의 연향의궤들에서 이 체제를 따랐다. 국가전례서의 준작도설과 마찬가지로 의궤 기용도에서 찬기보다는 주기가 차지하는 높은 수치를 확인했으므로 연향의궤에서 주기가 갖는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Ⅲ. 연향용 주기의 종류와 성격

조선후기 왕실 연향에서 사용되는 주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좁게는 잔, 병, 준, 술국자 등 술을 직접적으로 담고 옮기는 기명들을 지칭하지만, 넓게는 술그릇을 올려놓는 주정, 상, 상보자기 등까지 주기를 올리고, 옮기고, 마시는 주구나 가구까지 아우를 수 있다. 즉 ‘甝’의 해석에 따라 주기의 범위가 유동적인 셈이며, 이 장에서는 그중 좁은 의미의 주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향 절차 중 핵심은 잔에 담긴 술을 주인공에게 진작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연향의 목적과 연향 참여자들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축수를 기원하는 술을 담는 용도의 잔은 주기 중 가장 작은 그릇이지만 잔의 조형과 수를 통해 참석자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상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기능과 의미를 고려할 때 잔은 주기의 핵심 기종이라고 할 수 있다.

잔의 중요성은 연향의례 기용도에 실린 다양한 기물 중에서 잔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의례마다 잔을 적게는 4종류부터 많게는 12종류에 달하는 그림으로 실었다. 또 잔의 종류가 많은 만큼 기용도 속 잔의 명칭도 총 34개에 이를 만큼 다양하다.¹¹⁾ 각각의 명칭 안에는 기종(杯, 盞), 구성(臺具), 재질(옥, 금, 은, 鑲, 무소뿔, 마노), 장식(萬壽, 銑支頭) 등의 풍부한 정보들이 조합되어 있다(표 4).

준과 병은 행사를 위해 정성껏 만든 술을 잔에 담기 이전에 보관하거나 이동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주기로, 잔과 조합을 이루는 기종이다.¹²⁾ 의례

11) 34개라는 개수는 모두 조형적으로 상이한 34개의 잔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잔이라 하더라도 의례 기용도상의 명칭이 달라진 것까지 포함한 것이다. 명칭의 변화는 기법, 장식 나아가 그 기물이 가지는 역할과 가치의 변화까지 내포한다.

12) 병과 주자는 원래 준에 담겨있던 술을 옮겨 담아 잔에 따르기 직전까지 사용하는 용기로, 학술적인 기준으로 손잡이가 있으면 주자로 분류하고 손잡이가 없으면 병이

[표 4]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연향의례 속 주기의 명칭과 분포양상

(* 명칭 중 동일한 한자는 셀을 병합함. 동일한 주기이나 명칭만 달라진 경우 다른 셀로 분리하여 표시함, ● 옆 숫자는 동일한 명칭을 가진 다른 기물의 건수를 의미함)

구분	주기의 명칭			정조 19	순조 9	순조 27	순조 28	순조 29	현종 14	고종 5	고종 14	고종 24	고종 29	광무 5	광무 6		
				1795	1809	1827	1828	1829	1848	1868	1877	1887	1892	1901	1902		
				을묘	기사	정해	무자	기축	무신	무진	정축	정해	임진	신축	임인		
				A	B	C	D	E	F	G	H	I	J	K	L		
준 / 병	龍	樽	一			●		●	●	●	●	●	●	●	●		
			蓋具				●										
	酒	樽		●	●												
			白瓷	●													
			砂			●	●	●									
	玉	瓶	一			●		●									
			蓋具				●										
			花榴臺								●	●	●	●	●	●	●
	銀	瓶			●	●		●	●	●	●	●	●	●	●	●	
			鎗			●	●	●	●		●	●	●	●	●	●	
			磁		●												
			砂			●											
	銀鳳	瓶		●													
	白銅	瓶	蓋具				●										
	一	日月瓶		●													
	銀	日月瓶		●													
	銀鍍金	日月瓶						●	●	●	●	●	●	●	●		
	銀鍍金	別兒瓶	一			●											
			蓋具				●										
	五呈	瓶		●													
합산			4	5	7	6	6	4	4	5	5	5	5	5			
잔	犀杯	一	●														
		(鍍金臺)						●	●								
		(銀鍍金臺)								●	●	●	●	●	●		
	玉	金	爵	金拈		●											
					●												
鎗	爵	鎗拈		●													

玉杯	(玉臺)					●				●	●	●	●
	(銀臺)									●	●	●	●
	(鍍金臺)			●2		●2	●2						
	(銀鍍金臺)			●2					●	●	●	●	●
	(葡萄葉臺)							●	●				
	(銀鍍金葡萄葉臺)									●	●	●	●
玉桃花杯(鍍金臺)						●	●						
珊瑚杯	珊瑚臺					●							
	璜金臺					●							
水珊瑚杯(銀鍍金臺具)										●	●	●	●
金	盞 (金拵)		●										
銀	盞	●											
	(銀拵)		●										
鍍金杯(鍍金臺)				●									
銀鍍金	杯(銀鍍金臺)								●2	●2	●2	●2	●2
	桃花杯(鍍金臺)				●	●							
	銃支頭杯(鍍金臺)				●	●							
	萬壽杯(銀鍍金臺)								●	●	●	●	●
萬壽杯								●					
鍍金銀杯(銀鍍金臺伊臺)								●					
一	銀杯							●	●				
內鍍金			●		●	●							
內鍍金銀	卵杯		●		●								
銀鍍金大				●									
銀小					●								
一	五呈杯	●	●	●	●								
銀										●	●	●	●
鍮						●	●	●	●	●	●	●	●
합산		3	6	6	7	11	6	6	8	11	11	11	11

라고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의궤상의 명칭에서는 손잡이의 유무와 상관없이 병(瓶) 또는 별아병(別兒瓶)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에 실린 준, 병, 잔들은 거의 현전하지 않지만, 기용도에 나타난 명칭들과 그림을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의궤 속 기용도에 나타난 잔, 준, 병의 종류를 비롯하여 명칭, 재질, 조형,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연향용 주기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잔

조선후기 연향 의궤 속 기용도에는 다양한 주기들 중 잔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표 5). 다양한 잔들의 조형과 잔대와의 조합은 조선후기 연향에서 잔이 가지는 용도와 상징성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는 조선후기 뿐만이 아니라 조선전기의 국가전례서 속 제기도설과 준작도설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되는 바이다(표 1).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의궤 속 기용도에 나타난 잔의 종류, 명칭, 조형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향 의궤 기용도 속 잔의 명칭들은 다른 기종에 비해 명칭이 매우 다양하다. 명칭의 다양성은 잔의 재질과 잔대(蓋臺)를 나타내는 글자와 그 조합의 변화 때문이다(표 4). 잔의 종류를 열거하면, 서배의 경우는 4개의 명칭(서배, 서배+도금대, 서배+은도금대, 서배+은도금대구)과 2개의 종류가 확인되며, 작의 경우는 2개의 명칭(옥작+금점, 유작+유점)과 2개의 종류가 확인된다. 옥배의 경우는 6개의 명칭(옥배+옥대, 옥배+은대, 옥배+도금대, 옥배+은도금대, 옥배+은도금포도엽대, 옥도화배+도금대)과 13개의 종류가 확인되고, 문호배의 경우는 6개의 명칭(문호배, 문호배+대구, 문호배+문호대, 문호배+도금대, 문호배+은도금대, 수문호배+은도금대구)과 3개의 조형이 확인된다. 그리고 은도금배의 경우 5개의 명칭(도금배+도금대, 은도금배+은도금대, 은도금도화배+은도금대, 은도금선지두배+도금대, 은도금선지두배+개구+은도금대)과 4종류의 조형이 확인된다. 한편 만수배의 경우 2개의

[표 5] 조선 후기·대한제국기 연향의례 속 잔의 종류와 명칭

* 지면 관계상 잔의 그림이 기록된 의례의 명칭은 알파벳 기호로 표기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A: 圓幸乙卯整理儀軌(1795, 정조19/華城園行儀軌圖), B: 己巳進表裏進爵儀軌(1809, 순조9), C: 慈慶殿進爵整禮儀軌(1827, 순조27), D: 戊子進爵儀軌(1828, 순조28), E: 己丑進爵儀軌(1829, 순조29), F: 戊申進爵儀軌(1848, 헌종14), G: 戊辰進爵儀軌(1868, 고종5), H: 丁丑進爵儀軌(1877, 고종14), I: 丁亥進爵儀軌(1887, 고종24), J: 壬辰進爵儀軌(1892, 고종29), K: 辛丑進爵儀軌(1901, 광무5), L: 壬寅進宴儀軌(1902, 광무6) 괄호 안 알파벳은 기용도 그림은 없으나 문자를 기록한 경우를 의미한다.

의례	잔의 종류, 명칭, 수록 의례						
도설							
명칭	犀杯	玉爵 (金拵)	金爵 (金拵)	鍮爵 (鍮拵)	犀杯 (鍍金臺)	犀杯 (銀鍍金臺)	
기록	A	B	B	B	F,G	H,I,J,K,L	
도설							
명칭	銀盞	金盞 (金拵)	銀盞 (銀拵)	內鍍金銀 卵杯	內鍍金銀杯 /銀杯	銀鍍金大卵 杯	銀小卵杯
기록	A	B	B	C,E	C,E,F/G,H	D	D
도설							
명칭	玉杯 (鍍金臺/銀鍍金臺)				玉桃花杯 (鍍金臺)		
기록	C	D,E	F	C,D,E	E	F	

조선후기 왕실 연향용 주기(酒器)의 종류와 운용체계

도설							
명칭	玉杯 (銀鍍金臺)	玉杯 (銀臺)	玉杯 (鍍金臺)	玉杯 (玉臺)		玉杯 (葡萄葉臺)	玉杯 (銀鍍金葡萄葉臺)
기록	H,J,I,K	I,J,K,L	F	E	I,J,K,L	G,H	I,J,K,L
도설							
명칭	鍍金杯 (鍍金臺)	銀鍍金桃花 杯 (鍍金臺)	鍍金銃支頭 杯 (鍍金臺)	鍍金銀杯 (銀鍍金雕 伊臺)	銀鍍金杯 (銀鍍金臺)		
기록	C	D,E	D,E	G	H	H	I,J,K,L
도설							
명칭	萬壽杯	萬壽杯 (銀鍍金臺)	銀鍍金萬壽杯 (銀鍍金臺)	珊瑚杯 (珊瑚臺)	珊瑚杯 (鍍金臺)	水珊瑚杯 (銀鍍金臺具)	
기록	G	I,J,K,L	H	E	E	I,J,K,L	
도설							
명칭	五呈杯		銀五呈杯 (鍍金臺)	鍍五呈杯			
기록	A,B,C,D		I,J,K,L	E,F,G,H (I,J,K,L)			

명칭(만수배+은도금대, 만수배+만세천수)과 2개의 조형이 있으며, 문호배의 경우 3개의 명칭(문호배, 문호배+개구, 문호배+문호대, 문호배+도금대, 수문호배+은도금대구)이 기록되어 있다. 이 외 내도금은배, 내도금은난배, 내도금대란배, 은소란배, 은도금은난배가 있고, 오정배류로 오정배, 은오정배, 유오정배가 있다. 명칭에는 잔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도 하지만, 그림으로는 모든 잔에 잔대가 갖추어져 있다.

또 같은 조형의 잔일지라도 의궤 상에서 잔의 명칭이 조금씩 변화한다(표 5). 일견 도식에서는 같은 조형의 잔이지만, 그림 아래에 병기된 명칭은 새로운 한자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추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 끊임없이 잔과 잔대와의 조합이 달라지면서 각 명칭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조형의 잔과 잔대라도 『기축진찬의궤』에서는 ‘銀鍍金銃支頭杯, 鍍金臺’라고 하였으나, 『무자지찬의궤』에는 ‘銀鍍金銃支頭杯+蓋具+銀鍍金臺’라고 하였다.¹³⁾ 의궤 기용도마다 잔들의 종류와 조합 그리고 명칭들이 다양하므로 일견 각 연항마다 새로운 잔과 잔대들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잔들을 계속 사용하고 일부 잔과 잔대만 새롭게 추가하거나 잔과 잔대의 조합을 바꾸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더라도 다른 잔이 아니라 같은 잔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선왕이 연항에서 사용하였던 잔들을 잘 간수하였다가 선왕의 아들 혹은 손자가 같은 잔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왕실 차원에서 검약을 숭선하여 모범을 보이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13) 뿐만 아니라 같은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기용도설 상 주기의 조형이 약간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연항의궤 속 기용도가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의궤마다 목판을 새롭게 조각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도 3. 서배,
『원행을묘정리의궤』(1795) 기용도



도 4. 서배,
『화성원행의궤도』 기용도, 조선후기,
국립중앙박물관



도 5.
청옥기룡문작(靑玉夔龍紋爵),
총 높이 12.7cm, 청 건륭, 중국
북경고궁박물관

더불어 조선 전기의 왕실 가례용 주기의 구성을 지켜나가려는 노력과 함께 연향용 주기를 왕실의 보기(寶器)로써 대대로 소중히 간수하여 후대에 게 물려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IV장의 공급경로 중 내하(內下) 부분에서 다룰 예정이며, 지금부터는 잔의 조형과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앞의 표에 실린 잔의 도설과 명칭을 통해 볼 때, 잔의 종류는 재질에 따라 서각, 옥, 금, 은, 유, 마노로 나뉜다(표 4, 5). 잔은 작의 형태와 더불어 잔 중에서 반구형, 종자형, 원통형이 있고 반구형이나 종자형 중에는 양 쪽으로 손잡이가 달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잔은 모두 잔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가장 이르게 기용도에 등장한 잔은 1795년 화성 원행에 사용된 서배(犀杯), 은잔(銀盞), 유오정배(鑰五呈杯)이다. 무소뿔, 은, 합금동으로 이루어진 세 종류의 잔과 배는 이후 점점 분화되는 잔과 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 종류의 잔을 시작으로 일정한 틀 안에서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 중 서배는 연향용 잔을 논의하면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잔이다.¹⁴⁾ 연향의례 기용도설 중 가장 이르게 등장하는 술잔이기도 하고,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축배의 잔이기도 하면서, 효를 상징하는 잔이자 옥잔과도 호환되기 때문이다. 『원행음묘정리의례』 기용도에 처음 등장한 서배는 무소뿔로 만든 잔으로, 복숭아를 반으로 잘라 놓은 듯 한 잔에 양 기둥과 세 개의 다리가 달려 작(爵)을 이루고 있다(도 3).¹⁵⁾ 의례에는 목판화의 형태로 그려져 있으나 『화성원행의례도』에는 채색이 가해져 구체적인 실물의 모습을 파악하기 유용하다(도 4). 전체적으로 밝은 회갈색이며 둘레에 짙은 음영을 주어 잔의 입체감과 부피감을 살렸다. 잔의 아래에 옷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배대를 갖추고 있다. 흡사 옥을 연상시키는 서배는 중국에서 옥, 서각을 비롯해 다양한 재질로 제작되었다(도 5).

서배는 정조대 『원행음묘정리의례』에서는 정조가 시평(兕觥)을 거론하는 대목에서 등장하여, 원행시 왕의 헌잔이자 자궁의 술잔으로 선택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원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조는 내탕고(內帑庫)에 보관된 무소뿔 잔인 서작(犀爵)을 정리소에 내리며 이르기를, “『詩經』에 ‘저 시평(兕

-
- 14) 서각은 코뿔소 뿔이다. 코뿔소가 국내에서 서식하지 않으므로 주로 유구국이나 일본에서 토산물 바쳤다는 기록이 실록에 다수 등장한다. 서각은 색에 따라 화서각, 오서각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고, 관복의 帶 등의 장식품이나 약재로 사용되었다. 서각으로 만든 잔을 서각배, 서배, 서작이라고도 기록되었다. 문종대에 신료에게 宣醕, 香醕, 獐鹿, 柑橘과 함께 서각배를 하사하기도 했다. 『세조실록』, 세조1년(1445), 12월 9일 기사.
- 15)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는 작으로 불리는데 의례에서는 왜 배라고 했을까? 작은 유교식 주기로써 중요하게 여겨져 왕실 길례의 제사에 빠짐없이 등장한다. 그 이유는 작이 가지는 적은 용량이 제주의 귀함과 절주의 미덕을 상징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韓詩』에 “한 되들이를 爵이라 하니, 작은 다함이고 충분함이다. 두 되들이를 觚라고 하니, 고는 적음이니 적게 마셔야 하는 것이다(韓詩說 “一升曰爵, 爵, 盡也, 足也. 二升曰觚, 觚, 寡也, 飲當寡少.”)”라고 하였다. 작은 한 승의 작은 잔이면서도 잔의 총칭으로도 불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각작’이라고 하더라도 일승을 담은 작이 아니라 각을 의미한다.

觥)을 들어 축수드리니, 만수무강하리로다.’라고 하였으니, 이 잔이 비록 작으나 내탕고에 보관된 옛 물건이니, 시평을 대신하여 수주정(壽酒亭)에 사용할 수 있다.”하였다.¹⁶⁾ 정조는 순조의 관례 때에도 이 서배를 내오도록 한다. 즉 관례 때의 예작(醴爵)은 을묘년 봉수당(奉壽堂) 진찬(進饌) 때 썼던 시평을 들여다 쓰고, 술향아리는 정미년 가례 때에 썼던 자기 항아리[磁缸]를 쓰고, 삼가(三加)때의 기명(器皿) 등 속은 모두 대내에서 내려보내는 것을 쓰라고 명하였다.¹⁷⁾ 이 뿐만 아니라 현전하는 의궤를 종합한 결과, 순조대부터 고종대까지 꾸준히 서작이 사용되어 서배의 사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연향의궤에서는 원행 이후 한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현종대부터 고종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서작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표 5-서배-F,G,H,I,J,K,L). 그 형태는 『원행을묘정리의궤』와 거의 동일하고 수자문과 박쥐문양이 장식된 은도금잔대를 또 받쳐 이중으로 잔대를 갖추는 변화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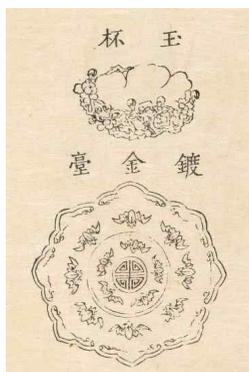
순조대에 서배는 옥작 그리고 옥잔과 호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미 정조가 왕실 가례에서 서배를 서작이라고도 부르며 사용하였고, 현종~고종대에도 같은 명칭과 조형의 서배가 꾸준히 사용되었다. 하지만 순조대의 『기사진표리진작의궤』에는 세 발이 달리고 잔에 두 기둥이 붙었던 서배 대신 옥작이란 기형이 등장한다(도 6). 보통 작(爵)이라고 하면 보통 잔에 세 개의 다리가 달려있어야 하지만, 『기사진표리진작의궤』의 옥작은 둥근 반구형의 옥잔이며 별도의 다리가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옥작은 작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옥작이라고 부른 점이 독특하다. 이뿐만 아니라 『기사

16) 『詩經』 豳風 十月濼場. ‘시월에는 타작마당 치우고 봉수사향(朋酒斯饗) 두어 통 술을 마련해 마을사람 대접하네. 왕살고양(白殺羔羊) 염소와 양을 잡아 어른들 대접하지 제피공당(躋彼公堂) 공당에 올라앉아 칭피시평(稱彼兕觥) 물소 뿔잔을 들어 술을 권한다네 만수무강(萬壽無疆) 부디 만수무강하소서.’

17) 『정조실록』, 정조 24년(1800) 1월 13일.



도 6. 옥작과 금점,
『기사진표리진작의궤』
(1809) 기용도



도 7. 옥배와 도금대,
『기축진찬의궤』(1829)
기용도



도 8. 도금선지두배와
도금대, 『기축진찬의궤』
(1829) 기용도



도 9.
靑玉鏤雕枝葉葵花
杯, 높이 8.8cm, 명,
중국북경고궁박물관



도 10.
황유백자양이잔과
잔대, 청, 영국
브리티쉬 뮤지움



도 11. 마노쌍리이배, 청,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진표리진작의궤』에서는 ‘옥작’의 잔대를 ‘금점(金拈)’이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대(臺)’로 불려야 하나 작의 잔받침을 별도로 부르는 용어인 ‘점(拈)’으로 승격한 것이다.

일반적인 작과 점은 왕실 제사용 주기로, 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권위를 가진 잔과 잔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작(작)점’.

‘잔+(잔)대’는 그 위격이 엄연히 다른 것이다. 『기사진표리진작의궤』에서 ‘작+점’의 조형이 아닌데도 옥잔과 금대를 ‘옥작’과 ‘금점’이라고 부른 것은 옥잔이 서배와 호환되는 관계에 있는 잔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순조대에는 서배의 위치를 옥작이 대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⁸⁾

또 『기사진표리진작의궤』에서는 잔과 잔대의 조합방식도 변한다. 『원행음묘정리의궤』에서 서배는 목칠로 제작된 받침대 위에 놓였는데, 『기사진표리진작의궤』부터 금이나 은을 도금한 잔받침이 옥잔과 조합을 이루는 양상이 꾸준히 확인된다. 따라서 『기사진표리진작의궤』가 이후의 연향용 옥잔과 잔대의 조합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연향의궤에서 자주 등장하는 옥배와 (은)도금잔대들이 『기사진표리진작의궤』의 옥작과 금점에서부터 연유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도 7, 표 5).

이미 선행연구에서 기사년의 연향을 준비한 인물이 순조와 순원왕후의 아들인 효명세자이며, 효명세자가 왕실 연향의 정제에 미친 영향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¹⁹⁾ 본고를 통해 주기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요약하면, 순조 기사년 연향의 옥작은 정조 음묘년 원행의 서배의 정통성을 계승한 잔이었다는 점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전기 준작도설의 옥배들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왕실 가례용 옥잔의 오랜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순조대 이후 연향에서 옥작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옥배와 (은)도금점으로 이어져 그 조형과 조합이

18) 이 외에도 『기사진표리진작의궤』에는 金爵, 鎭爵이 등장한다. 이때의 爵은 앞서 살펴본 玉爵과 달리 실제로 작의 형태와 같으며 모두 金拈과 鎭拈을 갖추고 있다. 조선 후기 연향의궤에서 잔의 종류를 모두 옥작, 금작, 유작 등 작으로 부르고 재질을 옥, 금, 유로 나누는 예는 『기사진표리진작의궤』가 유일하며 이와같은 새로운 분류와 명명 방식은 이 의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 한국무용예술학회 편, 『효명세자 연구』, 두솔, 2005; 조경아, 「순조대 효명세자 대리청정시 정제의 연향양상」, 『효명세자연구』, 한국무용예술학회편, 2005; 同著, 「조선후기 의궤를 통해 본 정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등.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기사진표리진작의궤』의 옥작과 금점이 주목된다.

『기사진표리진작의궤』 이후로 연향의궤에 여러 조형들의 옥배들이 꾸준히 수록되었다(도 7, 표 5).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연향의궤에 실린 옥배의 종류는 순조대의 기사년 연향에서 1건, 무자연향에서 3건, 기축연향에서 4건, 무신연향에서 3건, 정축연향에서 4건, 정해연향에서 5건, 임진, 신축, 임인연향에서 4건이다.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기사년 연향에 비해 늘어난 추세를 보인다. 옥배는 『기사진표리진작의궤』의 옥작과 거의 동일한 조형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등장하지만 다양한 옥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양이 조금씩 상이하다.

옥배의 조형은 크게 2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우선 화형옥잔으로, 꽃가지가 조각된 잔으로 기사년 옥작과 형태가 유사하며 은도금잔대를 갖춘 경우이다. 이와 같은 절지화가 조각된 화형 옥배는 중국 명·청대에 집중적으로 제작된 기종이다(도 9). 옥배는 다른 금잔, 은잔과 다르게 잔 뿐만 아니라 잔대도 가장 입체적이고 화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IV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와 같은 옥배를 사용하는 인물이 왕과 대왕대비라는 점에서 잔의 위계상 높은 위치를 차지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선형의 종지형태에 양손잡이가 달린 옥배이나 소형의 통형 옥배이다.

이와 같이 화형의 잔과 양손잡이가 달린 반구형의 잔으로 양분되는 현상은 조선왕실 선원전 의례에서 작헌례와 다례에서 첫 술잔에 사용되는 잔이 나뉘는 양상과 유사한 면모를 보여 왕실 연향과 선원전 의례와의 친연성을 암시한다(표 5).²⁰⁾ 잔의 양 옆에 손잡이가 달리고 잔받침을 갖춘 잔들도 중국에서 오래된 기형이다. 옥잔의 두 유형, 즉 화형의 옥잔과 양 손잡이가

20) 일반적으로 다례는 차를 올리는 의례였으나 술을 중시한 유교문화의 조선에서는 다례에서도 술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것. 구혜인,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선원전 다례(茶禮)와 다기(茶器)」, 『한국학』 43,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갖춰진 종지형 잔들의 용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도 10).

더불어 금, 은으로 제작한 잔들도 있는데,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은잔, 『기사진표리진작의궤』의 은잔과 금잔을 시작으로 그 이후의 의궤들에서는 잔대를 갖춘 도금배 유형들이 자주 사용되었다. 또 마노(瑪瑙)로 제작한 잔들도 『기축진찬의궤』부터 등장하여 지속적으로 쓰였다(표 5, 도 11). 마지막으로 오정배는 신료 혹은 내외명부들에게 내려주는 잔들이다. 『원행을묘정리의궤』에서부터 연향에 꾸준히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오정배는 필수 기명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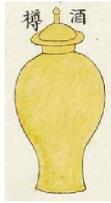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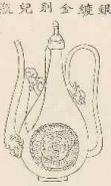
이처럼 서배, 옥작, 금점, 옥배, (은)도금잔대, 금작, 은작, 금잔, 은잔, 마노잔, 오정배 등을 통해 조선후기 왕실 연향에서 사용된 다양한 잔들의 조형과 명칭을 확인하였다. 그 중 서배, 옥작, 옥배로 이어지는 옥잔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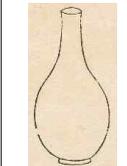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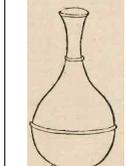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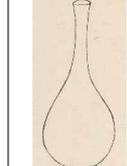
2. 준, 병

조선후기 왕실 연향의궤에서는 주준으로 백자준(白瓷樽), 주준(酒樽), 용준(龍樽), 사준(砂樽)이란 명칭이 기록되었다. 술항아리를 의미하는 ‘준(尊)’이란 문자에 재질(白瓷, 砂), 용도(酒), 문양(龍)을 뜻하는 한자를 결합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병도 ‘병(瓶)’이란 문자에 다양한 재질(玉, 金, 銀, 鍍金銀, 白銅, 鎳, 磁, 砂)과 장식(日月, 鳳)을 뜻하는 문자를 결합하여 기명(器名)의 다채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질은 은으로 은병, 은일월병, 은도금일월병, 은봉병 등이 있고 그 외 각각의 재질에 따라 백동병, 유병, 자병, 사병 등이 있다. 그리고 현대 학술 분류의 개념에서 주자라고 불리는 손잡이가 달린 병도 있는데, 그 종류로는 은봉병, 은도금별아병, 은도금일월병, 옥병 등이 있다. 또 주자 중 은도금별아병과 은도금일월병은 동일한 조형과 문양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표 6] 조선 후기·대한제국기 연향의례 속 병·준의 종류와 양상

* 지면 한계상 잔의 그림이 수록된 의례의 명칭은 알파벳 기호로 표기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A: 園幸乙卯整理儀軌(1795, 정조19/ 華城園行儀軌圖), B: 己巳進表裏進爵儀軌(1809, 순조9), C: 慈慶殿進爵整禮儀軌(1827, 순조27), D: 戊子進爵儀軌(1828, 순조28), E: 己丑進饌儀軌(1829, 순조29), F: 戊申進饌儀軌(1848, 헌종14), G: 戊辰進饌儀軌(1868, 고종5), H: 丁丑進饌儀軌(1877, 고종14), I: 丁亥進饌儀軌(1887, 고종24), J: 壬辰進饌儀軌(1892, 고종29), K: 辛丑進饌儀軌(1901, 광무5), L: 壬寅進宴儀軌(1902, 광무6)

의례	병·준 종류, 명칭, 수록 의례				
주기					
명칭	白瓷樽	酒樽	酒樽	龍樽	砂樽
의례	A	A	B	C,D,E,F,G,H,I, J,K,L	C,D,E
주기					
명칭	日月瓶	銀日月瓶	銀瓶	銀瓶	白銅瓶 (蓋具)
의례	A	B	B	C,E,F,G,H,I,J, K,L	D
주기					
명칭	銀鳳瓶	銀鍍金別兒瓶	銀鍍金別兒瓶 (蓋具)	銀鍍金日月瓶	
의례	B	C	D	E,F,G,H,I,J,K,L	

주기					
명칭	玉瓶	玉瓶 (蓋具)	玉瓶 (花榴臺)		
의궤	C,E	D	G,H,I,J,K,L		
주기					
명칭	五呈瓶	磁瓶	鍤瓶	鍤瓶	砂瓶
의궤	A	B	C,D,E	F,G,H,I,J,K,L	C

연향의궤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준은 『원행을묘정리의궤』의 백자준과 유제주준이다(표 6). 『원행을묘정리의궤』의 백자준은 학계의 분류상 병에 속하나, 당시에는 병 기형을 준이라고도 부른 것으로 여겨진다. 무늬가 없는 무문(無文)의 백자준은 『기사진표리진작의궤』의 주준과 『자경전진작정례의궤』, 『무자진작의궤』, 『기축진찬의궤』의 사준으로 지속되다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의궤에 실리지 않는다. 물론 의궤에 실리지 않는다고 해서 연향에서 무문의 백자준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기용도에는 신지 않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살펴볼 용준은 백자청화운룡문호(白磁靑畫雲龍文壺)로 백자 위에 청화안료로 용문, 구름문을 그린 항아리이다. 연향의궤 중 1795년에 인출된 『원행을묘정리의궤』 기용도에 처음 실린 용준은 주준이 아니라 꽃을 꺾는 화준(花尊)으로 등장하였고, 이어 『기사진표리진작의궤』 연향장면에

화준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²¹⁾ 이와 비교하여 주준용 용준이 의궤 기용도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1827년으로 『자경전진작정례의궤』부터이며 『임인진연의궤』까지 꾸준히 수록되었다(표 6). 조선후기 왕실 연향에서 주준은 『원행음묘정리의궤』의 무문의 백자준이나 유제 주준 혹은 『기사진표리진작의궤』의 무문의 백자준의 형태였으며, 『자경전진작정례의궤』에서부터 비로소 백자용준의 형태로 선택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기존에 연향의궤의 기용도에서 화준으로만 실린 백자용준이 순조27(1827)년의 『자경전진작정례의궤』의 기용도부터 화준 뿐만 아니라 주준으로도 실림으로써 용준이 왕실 연향용 화기와 주기의 자리를 모두 점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국내에서 백자용준은 주준으로 사용한 사실은 이미 조선 초 국가전례서 가례의 준작도설 ‘백자청화주해’의 존재로부터 확인되는 바이다. 조선시대 국가전례서의 가례, 길례, 흥례 부분 도설에서 백자용준은 각각 白磁靑畫(花)酒海, 畫龍沙尊, 靑磁尊이란 명칭과 그림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가례에서 사용된 백자청화주해는 왕실 혼례 동뢰연에서 사용하는 필수 기명이었던 사실은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²²⁾ 따라서 『자경전진작정례의궤』에 도설로 등장한 주준용 용준은 새로운 등장이라기 보다는 백자용준을 주준으로 사용하던 왕실의 유서 깊은 관습이 비로소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왕실의 많은 의례 중 조선후기 연향이란 행사에 백자청화운룡문호를 쓰는 원칙이 수립되고 이 원칙이 왕실 기록물인 연향의궤에도 반영되어(주준용) 용준이란 명칭의 공식적인 도식으로 수록된 것은 1827년의 일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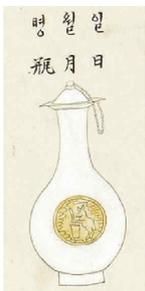
21) 화준으로 사용된 용준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신승인, 「朝鮮後期王室宴享用白磁花樽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22) 구혜인, 앞의 논문, 2017, 16~19쪽. 기록이 아닌 유물로써의 백자용준도 조선전기 가마인 우산리 9호 가마터에서 편으로 이미 확인된 바이다. 이화여자대학교, 『朝鮮白磁窯址發掘調査報告展:附廣州牛山里9號窯址發掘調査報告』,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3.

다음으로 주기로 자주 등장하는 일월병을 살펴보겠다. 일월병은 『원행을묘정리의궤』와 『화성원행의궤도』에서부터 등장한다(표 6, 도 12). 1795년 화성 잔치에 사용된 일월병은 목이 길고 동체가 구형을 이루며 사슬이 달린 뚜껑을 갖춘 전형적인 병의 형태이며 은으로 제작되고 동체 장식은 도금되었다. 이 병을 일월병이라고 칭하는 것은 동체의 문양에 해와 달이 장식되었기 때문인데, 의궤에서는 달 안에서 토끼가 방아를 찧는 문양이 확인된다. 이후 일월병은 『기사진표리진작의궤』에서 ‘은일월병’으로 표시되었고, 『자경전진작정례의궤』부터는 유선형의 손잡이와 긴 주구가 달린 별아병, 즉 주자의 형태로 제작되었다(도 13).²⁴⁾ 현전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거의 동일한 조형을 갖춘 유물이 있어 이 유물이 왕실 연향에서 사용되었다는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고, 이 유물이 제작된 시기는 의궤상 처음 등장하는 『자경전진작정례의궤』의 인출연도인 1827년 전후에서부터 『임인진연의궤』가 출간된 1902년 전후까지로 약 80년 사이에 제작되었다고 여겨진다(도 14).

이처럼 의궤 도설 분석을 통해서 준이란 명칭이 용량이 큰 병과 상통하기

-
- 23) 신승인의 연구에서도 조선후기 왕실 기록화에서 왕실 연향의 기준으로 무문의 백자준을 사용했다가 1719년 행사를 기록한 《기해기사첩》 제 3면 〈경현당석연도〉에서 기준으로 청화백자용준을 사용한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신승인, 앞의 연구, 2011, 68~70쪽.
- 24) 별아병의 ‘별아’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전통직물에서 별문(別紋)이 원형의 문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별아는 ‘일월’을 대체한 용어일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이아름·이은주, 앞의 논문, 2018, 264~265쪽. 필자는 별아가 문양을 의미하기보다는 형태, 즉 별도로 부착한 출수구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조선 후기 의궤 전반을 분석한 결과 조선후기 가례도감의궤에서 銀圓別兒瓶蓋鎖具, 銀圓別兒瓶, 銀鍍金別兒에서 확인되고, 빈전혼전도감의궤, 빈궁혼궁도감의궤, 예장도감의궤 등에서는 銀別兒蓋鎖具, 銀兩面鍍金別兒, 銀兩面鍍金別兒蓋鎖具, 銀兩面塗金別兒, 銀別兒 등의 용어가 확인된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별아는 별아병으로도 불리지만 銀兩面塗金別兒, 銀鍍金別兒, 銀別兒 등처럼 병(瓶)이란 용어 없이 단독으로 별아라고도 하였다. 그러므로 별아는 문양이라기보다는 형태, 즉 별도의 주구를 가진 병이란 기종을 의미한다고 추정된다.



도 12. 일월병,
『화성원행의궤』(1795),
조선후기,
국립중앙박물관



도 13.
은도금일월병,
『자경전진작정례
의궤』(1827)



도 14.
은제금도금일월문주
자, 총 높이 28cm,
조선후기,
국립고궁박물관



도 15.
은류금참화호로식집호
(銀鑲金鑿花葫蘆式執壺),
총 높이 48cm, 청 건륭,
중국 북경고궁박물관



도 16-1. 옥병,
『자경전진작정례의
궤』(1827)



도 16-2. 옥병
뚜껑에 조각된
수노인상,
『자경전진작정례의
궤』(1827)



도 17-1.
옥인선문집호(玉
八仙紋執壺), 높이
27cm, 명, 중국
북경고궁박물관



도 17-2. 옥병에
장식된 선인문

도 한다는 점, 손잡이가 달린 병을 별야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점, 병이란 명칭이 별야병과 혼용되기도 했다는 점등을 새롭게 알 수 있다. 비슷한 손잡이와 주구가 달리고 유금기법으로 장식한 병은 명~청대에도 제작된 사례가 있으나 중국 명청대에는 일월문으로 장식된 병이 드물다(도 15). 이에 비해

은도금일월별야병은 의례에서 꾸준히 등장한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왕실 주기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기종으로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옥병은 병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놓인 병이며, 왕실 주기 중 옥잔과 하나의 조합을 이룬다. 옥병에는 별도의 주구와 사슬이 달린 뚜껑이 갖춰져 있고, 인물(壽老人, 仙人), 꽃(蓮瓣), 이룡(螭龍), 구름 무늬가 입체감 있게 조각되어 있다(도 16). 국내에 이와 유사한 옥병이 현전하는 사례는 아직 확인되는 바 없고, 중국 명~청대 유물 중 손잡이가 달린 병, 일명 집호(執壺)의 뚜껑에 수노인을 조각하고 동체에 선인들을 장식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도 17).²⁵⁾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옥병은 왕실 연향에서 위차가 가장 높은 인물이나 연향의 주인공을 위한 주기로 사용되었다.²⁶⁾ 그래서 수노인이나 불사의 선인을 조각하고 축수를 기원하는 문구들을 새긴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 오정병, 자병, 유병, 사병 등도 도설에 실렸다(표 6). 이 병들은 앞서 살펴본 병들에 비해 장식이 거의 없고 모양도 단순한 병들로 앞서 살펴본 장식적인 병들과 대비된다. 한 화면에 여러 조형적 성격의 주기를 배치한 것은 그 잔들을 사용하는 사람 간의 위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연향에

25) 기존 연구에서는 옥병의 동체에 장식된 구름을 탄 인물상을 수노인으로 지칭하였다. 이아름, 앞의 논문, 2019, 72~73쪽. 그러나 수노인의 신체적 특성인 長頭, 短身이나 사슴이 동반되지 않는 등 수노인으로 확정할만한 도상적 특징이 불충분하다. 물론 頭巾을 쓰고 구름 위에 서 있는 수노인의 도상이 존재하긴 하지만, 장식 중 수노인은 동체의 인물상 보다는 뚜껑의 인물상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옥병의 뚜껑 좌측에 ‘三仙’이라는 글씨가 있어 이를 토대로, 福祿壽를 관장하는 삼신 중 수를 담당하는 수노인을 뚜껑에 배치하고 복, 녹을 상징하는 선인을 동체 양측에 배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조선후기 수노인 도상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조희영, 「동아시아 壽老人圖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4.

26) 19세기 궁중연향에서 술병으로 옥병이 배설된 주빈에 관해서는 이아름의 연구를 참고할 것. 이아름, 앞의 논문, 2019, 70~72쪽.

다양한 음식들을 진설함에도 불구하고, 기용도에 주기들을 주로 실은 것 역시 주기가 연향 참석자들의 위치를 반영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연향의 공간에 다양한 위치의 인물들이 동석한 것처럼, 기용도에도 그들이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마치 존재를 상징하는 듯한 기물들을 함께 배치하였다. 고급 기물들은 연향의 아름다움과 효행의 정성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자, 이를 범본으로 삼아 예를 벗어나지 않고 참람해지지 않도록 규제를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V. 연향용 주기의 운용체계과 의미

조선후기 왕실 연향용 기명들의 위치별 사용체계에 대해서는 역사학, 미술사학, 식품영양학, 문화재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들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왔다.²⁷⁾ 그리고 최근 조선후기 왕실 연향용 주기와 참석자의 위치의 관계 및 의미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²⁸⁾ 현재 연구들이 주로 주기의 사용과 소비의 측면에서 주목하였다면, 이에 비해 연향용 주기의 공급방식을 함께 다룬 연구는 일부 기종(유종 등)을 제외하고 드문 상황이다.

본 장에서는 연향용 주기의 공급과 사용이란 체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한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²⁹⁾ 이와 관련한 정보는 앞서 살펴본 기용도 보다

27) 이러한 차별은 근본적으로 조선왕실의 사상적 기반인 유교에서 기반한 것이다. 조선 후기 왕실 의례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에서 신분에 따른 의례, 음악, 복식, 음식, 기명 등의 위치와 구별에 대해 다루었다. 지면의 한계상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성과를 모두 언급하기는 어려우므로, 본고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들을 나열한 주석 2번으로 선행연구사를 대신한다.

28) 이아름의 연구는 19세기 조선왕실 진작 기물의 위치별 사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천착하고 있다. 이아름, 앞의 논문a, 2018; 同著, 앞의 논문b, 2018; 同著, 앞의 논문, 2019.

는 의궤 배설(排設)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각각의 기물들이 무슨 부서에서 조달되어 누구를 위한 수주정(주정)에 진설되었는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표 7). 물론 위에서 열거한 자료적 한계로 인해, 조선왕실 연향용 주기의 ‘공급과 사용’에 관한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단편적이지만 명확한 사료를 근거로, 왕실 연향에 공급된 다양한 주기들이 공급된 경로를 사례로써 확인한다면 기존에 연구된 주기의 ‘사용체계’와 ‘공급체계’를 서로 연결시켜 전체적인 운영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의궤 배설을 통해 본 주기의 다양한 공급경로는 모두 4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왕실에서 직접 내리는 주기, 즉 내하하는 주기가 있다. 예를 들어 서배(은도금대), 은작, 옥배(대구), 은오정배, 도금은대 등으로, 옥, 금, 은 등 고급 기물들은 왕실에서 내하하여 잔치에 사용하였다가 다시 원수장처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내하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기의 경우는 연향을 맞아 새롭게 제작한 경우도 있겠으나 기존에 대대로 내려오던 주기였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호조에서 제작하여 조달하는 주기가 있다. 『원행음묘정리의궤』 등 의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은병, 은일월병, 은잔, 은오정배 등을 본소, 즉 호조에서 조달했다.³⁰⁾ 내하와 호조(본소)의 조달 비율은 시기에 따라 달라

29) 연향용 주기는 다른 기물들에 비해 그 종류는 다양하지만 개수는 최소하다. 그 이유는 제절도 옥, 서각, 금, 은 등으로 귀할 뿐만 아니라 기형, 장식기법, 장식문양 등도 일반적인 공예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편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주기들이 어디서 제작되고 공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현재도 이를 밝히는 조건들이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연향과 음식 그리고 기명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뤄진바 이제는 작은 단서들을 모아 공급체계를 추적해볼 단계에 진입되었다고 여겨진다.

30) 『원행음묘정리의궤』에서 나타난 본소는 호조의 중앙관청이다. 호조에서는 왕실의 물품을 제작하고 보관하고 대여하기도 했는데, 호조에 본조와 그 이하 관청인 제용

[표 7] 정조, 순조, 고종대 연향의궤 속 주기의 사용자와 공급처

◎: 혜경궁, 대왕대비, 태후의 주기, ●: 왕의 주기, □: 왕세자, 황태자의 주기, ■: 중궁, 왕세자빈, 황태자비의 주기, ◎ ● □ ■ 의 옆의 글자 중 '상'은 상의원, '본'은 본조(本所), '사'와 '주'는 사용원과 주원, '내'는 내하, '전'은 전선사

의궤	정리의궤 (1795)	기축진찬의궤 (1829) 중 내진찬			무진진찬의궤 (1868) 중 내진찬		
왕대	정조대	순조대			고종대		
위치	혜경궁	왕	왕 세자	왕세 자빈	신정 왕후	왕	중궁 전
수주정(壽酒亭)	◎	◎상			◎상		
주칠아가상준대(朱漆阿架末樽臺)		●본			◎상		
곡수각장좌면지(曲水各張座面紙)		●본			◎상		
홍주복(紅紬袱)	◎본	●본					
상건(牀巾)	◎본						
유지(油紙)							
개복홍수주복(蓋覆紅水紬袱)		●본			◎상		
용준개구(龍樽蓋具)		●주			◎주		
옥병개구(玉瓶蓋具)		●내			◎내		
은병개구(銀瓶蓋具)							
은일월병(銀日月瓶)	◎본						
은도금일월병개구(銀鍍金日月瓶蓋具)							
은작(銀爵)					◎내		
서배(犀杯)	◎내				◎내		
옥매(玉杯)		●내			◎내		
옥배대구(玉杯臺具)		●내					
옥배은도금대구(玉杯銀鍍金臺具)		●내					
옥배은도금루용대(玉杯銀鍍金鑲龍臺)		●본					
은잔(銀盞)/은배(銀杯)	◎본				◎내		

감, 평시서, 공조 본조, 공조 상의원 등이 있었다.

은오정배(銀五程杯)							
도금은대(鍍金銀臺)					◎내		
은도금대구(銀鍍金臺具)							
은도금배개대구(銀鍍金杯蓋臺具)							
은반루금선개구(銀半鍍金鏞蓋具)		●내					
은이선(銀耳鐺)		●내					
문호배(珊瑚杯)		●내					
문호배대구(珊瑚杯臺具)		●내					
문호배은도금대(珊瑚杯銀鍍金臺)		●본					
수문호배은도금대구(水珊瑚杯銀鍍金臺)							
은작(銀勺)		●본					
주정(酒亭)							
주칠아가상준대(朱漆阿架床樽臺)						●상	■상
흑칠아가상준대(黑漆阿架床樽臺)			□본				
황칠아가상준대(黃漆阿架床樽臺)							
흑칠아가상(黑漆阿架床)					■상		
흑칠준대(黑漆樽臺)					■본		
각장좌면지(各張座面紙)							
곡수각장좌면지(曲水各張座面紙)			□본	■본		●상	■상
개복황수주복(蓋覆黃水袖袱)							
개복남수주복(蓋覆藍水袖袱)			□본	■본			
개복홍수주복(蓋覆紅水袖袱)						●상	■상
용준개구(龍樽蓋具)			□주	■주		●주	■주
은일월병개구(銀日月瓶蓋具)			□내	■내		●내	■내
옥배대구(玉杯臺具)							
옥배은대구(玉杯銀臺具)							
은도금배대구(銀內鍍金杯臺具)			□내	■내		●내	■내
은반루금선개구(漆銀半鍍金鏞蓋具)			□내	■내			
은이선(銀耳鐺)			□내	■내			
은작(銀勺)			□본	■내		●내	■내

다정(茶亭)							
주칠아가상(朱漆阿架床)		●상			◎상	●상	■상
흑칠아가상(黑漆阿架床)			□상	■상			
은다관개구(銀茶罐蓋具)		●내	□내	■내	◎내	●내	■내
은다종개대구(銀茶鍾蓋臺具)		●내	□내	■내	◎내	●내	■내
각장좌면지(各張座面紙)							
곡수각장좌면지(曲水各張座面紙)		●본	□본	■본	◎상	●상	■상
개복황수주복(蓋覆黃水袖袱)							
개복홍수주복(蓋覆紅水袖袱)		●본			◎상	●상	■상
개복남수주복(蓋覆藍水袖袱)			□본	■본			
시접반(匙標盤)							
주칠원반(朱漆圓盤)		●내					
흑칠원반(黑漆圓盤)			□내	■내			
황칠소원반(黃漆小圓盤)							
주칠소원반(朱漆小圓盤)					◎내	●내	■내
흑칠은시접(黑漆銀匙標)			□내				
은시접개구(銀匙標蓋具)		●내		■내	◎내	●내	■내
은영릉시(銀玲瓏匙)		●내	□내	■내	◎내	●내	■내
은소아(銀召兒)		●내	□내	■내	◎내	●내	■내
은저(銀著)		●내	□내	■내	◎내	●내	■내
개복황저포복(蓋覆黃苧布袱)							
개복홍저복(蓋覆紅苧袱)		●내					
개복홍저포복(蓋覆紅苧布袱)					◎상	●상	■상
개복아청저복(蓋覆靑苧布袱)			□본	■본			

지는데, 예를 들어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경우 서배만 내하받고 은 재질의 주기는 모두 호조에서 조달했다. 이에 비해 1868년 『무진진찬의궤』에는 호조 본조가 사라지고 모두 내하만 확인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점차 연향용 주기를 왕실 내부에서 수장하고, 연향시 조달해 사용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 Ⅲ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내하하는 기물 중 옥재질의 주기들은 명~청대 주기들과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 제작되었다기 보다는 중국에서 제작되어 수입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도 5, 9, 17).

셋째, 사옹원에서 조달하는 주기가 있는데, 곧 백자용준이다. 조선시대 백자청화용준은 곳곳이 용도인 화준과 술항아리 용도인 주준으로 제작되었다. 용준은 의궤 속 배설에서 ‘주원’ 혹은 ‘사옹원’으로 기록되어 있어, 왕실 백자를 조달하던 관요인 사옹원 분원에서 용준을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7]에서 살펴본 세 건의 의궤 외에 현전하는 모든 연향 의궤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옹원 분원에서 용준을 전담했다.

넷째, 상의원에서는 주기를 진설할 각종 기물을 조달했는데, 예를 들어 수수정, 주정, 준대, 아가상 등 가구류와 좌면지, 주복 등 지류, 섬유류를 담당했다.

이를 통해 보면 연향용 주기는 여러 경로로 조달되었다. 예를 들어 옥, 금, 은으로 제작된 병과 잔의 경우 왕실에서 내하되거나 호조 본조에서 조달 하였고, 가구와 각종 섬유지류는 상의원에서 공급했고, 백자용준은 사옹원 분원에서 제작하여 공급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본고에서는 3건의 의궤를 통해 연향용 기물을 주로 조달한 관부와 물품을 대략 파악한 것이므로, 향후 연향의궤 전체를 조사한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위치와 주기의 관계를 통해 사용 문화를 살펴보겠다. 『기축진찬의궤』(1829) 강녕전진찬배설위차를 살펴보면, 왕은 왕세자, 왕세자빈과 주기를 통해 엄연한 위치의 구분을 두었다. 예를 들어 뚜껑을 갖춘 옥병의 경우는 연향의 주인공인 왕의 수수정에만 진설되고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주정에는 배치되지 않는다. 대신 주정에는 뚜껑을 갖춘 은일월병이 배설되었다. 이에 비해 용준은 왕 뿐 만 아니라 왕세자 그리고 왕세자빈에게 모두 배설되어 병과 달리 준은 동일한 기물을 사용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잔도 사용자의 위치를 잘 드러내준다. 예를 들어 왕은 은도금선지두배, 4종류의 옥배(옥배, 옥배+대구, 옥배+은도금대구, 옥배,은도금루용대), 2종류의 문호배(문호배+대구, 문호배+은도금대), 난배 1종류(은내도금란배대구)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왕세자와 왕세자빈은 옥, 만호 등으로 제작한 잔은 사용하지 못하고 난배(은내도금난배+대구, 은내도금배+대구)를 사용했다. 이처럼 병과 마찬가지로 잔의 경우 옥, 은도금, 마노 등을 두루 사용할 수 있었고 고부조의 장식이 있는 잔들을 사용했으나, 왕세자빈의 경우는 은도금된 잔이기는 하나 장식이 거의 가해지지 않은 잔을 사용할 수 있었다. 즉 잔의 기종, 장식, 재질등을 통해 사용자의 신분을 상징한 것이다.

이어 기축으로부터 40년 뒤에 이루어진 1868년(고종5)의 『무진진찬의궤』에 대해 살펴보면, 연향의 주인공인 대왕대비가 수주정을 받는다. 대왕대비인 신정왕후의 주기는 왕과 왕비의 주기와 엄격한 차이가 있다. 즉 대왕대비는 수주정 위에 놓인 옥병, 서배+은도금대구, 옥배, 은도금선지두배를 사용하였던 것에 비해 왕과 왕비는 주칠된 주정 위에 놓인 은일월병과 은도금배로 간략한 구성의 주기를 사용하였다. 다만 용준은 신정왕후부터 왕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용되었다.

이를 통해 보면 연향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따라 왕의 주기도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주기가 연향에서 참가자의 위치를 표시하는 주요 상징물로 기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위치 관계에는 정치적 권력관계 뿐 만 아니라 가족관계가 함께 작용하였다. 위의 의궤 기용도의 그림을 기준으로 조형상 장식이 많은 주기들의 대부분은 대왕대비와 왕을 위한 주기들이고 그 외 단순한 형태의 병과 잔들은 중궁, 왕세자, 왕세자빈 그리고 그 이하의 참석자들을 위한 주기들이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일견 당연한 듯 여겨지기도 한다. 즉 재질, 조형, 수량을 통해 위치를 구분한다는 것은 단지 주기 뿐만 아니라 복식, 의장, 의례기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 18. 도금선지두배와 도금대, 『기축진찬의궤』 (1829) 기용도
 도 19. 도금선지두배와 도금대, 『기축진찬의궤』 (1829) 기용도
 도 20. 도금선지두배와 도금대, 『기축진찬의궤』 (1829) 기용도

그러나 주기를 다기와 비교하면 위치에 따른 차별이 당연한 현상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표 7]처럼 주정 위에 올라간 주기는 신분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지는 경향이 강하지만, 다정과 시접반에 올라간 각종 기물들은 신분의 구분이 거의 없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다정은 신분에 따라 상의 칠을 주칠과 흑칠로 나뉘어 구분되었으나, 다정 위에 올라가는 다관, 다종은 신분과 상관없이 왕, 대왕대비, 왕비, 왕세자, 왕세자비 구분없이 모두 동일한 기종과 수량으로 구성되었다. 재질도 은으로 동일하고 조형도 손잡이가 달린 주자와 받침이 달린 잔이 다기로 통일되었다(도 18, 19). 연향의례를 모두 조사한 결과 그 기종과 형태가 거의 단일하게 유지되고 별도의 장식도 없어, 다양한 형태와 장식을 특징으로 하는 주기와 그 양상이 대비된다.

식사도구를 올려놓는 시접반도 마찬가지로 원반의 칠에서 차이가 날 뿐, 왕, 대왕대비, 왕비, 왕세자, 왕세자비 거의 동일한 식사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다기와 유사하고 주기와 대비된다(도 20).

조선후기 왕실 연향용 주기의 기종, 재질, 조형, 장식의 다양성은 연향의 화려함을 보조하기 위한 도구거나 효심에서 우리나라의 정성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해석해되어 왔고 분명 타당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즉 다정과 시접반에 올려진 다른 기명과 비교했을 때 주기는 기종, 재질, 장식, 개수 등을 차별화시켜 참석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수단이 되었고, 이에 조선 왕실에서는 연향에서 주기를 적절하게 배치하려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궤의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겨졌다.

조선에서 신분에 따라 기물을 차등해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상식에 약간의 간격과 고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선시대 연향의궤의 기물에 한정하여 볼 때, 연향에 동원되는 모든 기물을 신분에 따라 차등화시킨 것이 아니라 다기와 시접반처럼 대왕대비부터 왕세자빈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기물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사실과 함께 신분에 따른 ‘공예적 차등’을 증폭시키고 극대화시킨 대상은 주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연향에서 사용된 주기의 종류 및 구성을 의궤 기용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주기의 공급과 사용양상에 관한 파악을 시도하여, 조선왕실의 공예문화에서 주기가 갖는 의미와 성격을 이해하고자 했다.

조선후기 연향의궤 속 기용도의 시작은 조선 전기 국가전례서의 준작도설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내내 국가전례서 속 준작도설에서 주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기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고, 조선후기 연향의궤 기용도에 나타난 주기들을 분석한 결과 의궤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용도 중 주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기는 혼례부터 연향에 이르기까지 왕실 가례를 상징하는 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주기 중 핵심기종은 잔이다. 잔은 가장 작은 크기의 주기이지만 잔의 조형과 수를 통해 참석자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상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있다. 잔의 중요성은 연향의례 기용도에 실린 다양한 기물 중에서 잔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기용도에 수록된 다양한 명칭들은 잔의 기종, 구성, 재질, 장식 등 풍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데, 그 중 정조대 연향의 주인공에게 바치는 잔인 서배는 순조대 옥작으로 호환되고 그 이후에는 옥잔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명칭과 기형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알 수 있었다. 의궤에 나타난 사준, 일월병, 옥병, 오정병 등도 의궤 속 명칭과 그림을 통해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향용 주기의 공급과 사용양상에 대해 간략히 파악해보았다. 의궤 배설조에 내하, 본소(本所), 주원, 상의원으로 기록된 것에 의거하여, 왕실에서 직접 내리는 내하의 방식, 호조에서 보관하던 기물을 가져오거나 새롭게 제작하는 방식, 사용원에서 제작해 조달하는 방식, 상의원에서 조달 받는 방식으로 나뉘었다. 조선후기 내내 연향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주기를 여러 기관들에서 나누어 조달받았고, 그 물품들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대부분 담당 부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사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본고에서 다른 의궤는 일부 사례이므로, 향후 의궤 전체를 살펴야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기는 참여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엄격히 구분되어 인물의 위치를 구분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며, 같은 연향공간에 배설된 다기나 찬기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다기나 찬기에 비해 주기는 사용자의 신분을 구분하고 연향의 성격을 드러내는 의도가 담긴 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신분에 따라 기물을 차등해 사용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왕실 연향에서 다기나 식사도구는 신분적 차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에 비해 주기는 신분적 차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주기가 가지는 공예적 의미가 새롭게 환기된다.

참고문헌

1. 사료

『詩經』

『韓詩』

『朝鮮王朝實錄』

『國朝五禮儀』

『園幸乙卯整理儀軌』(1795, 정조19)

『己巳進表裏進爵儀軌』(1809, 순조9)

『慈慶殿進爵整禮儀軌』(1827, 순조27)

『戊子進爵儀軌』(1828, 순조28)

『己丑進饌儀軌』(1829, 순조29)

『戊申進饌儀軌』(1848, 헌종14)

『戊辰進饌儀軌』(1868, 고종5)

『丁丑進饌儀軌』(1877, 고종14)

『丁亥進饌儀軌』(1887, 고종24)

『壬辰進饌儀軌』(1892, 고종29)

『辛丑進饌儀軌』(1901, 광무5)

『壬寅進宴儀軌』(1902, 광무6)

2 단행본

김중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 민속원, 2001.

이화여자대학교,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展: 附 廣州牛山里9號窯址 發掘調査報告』,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3.

한국무용예술학회 편, 『효명세자 연구』, 두술, 2005.

3. 논문

- 구혜인, 「조선시대 주준(酒樽)용 백자용준(白磁龍樽)의 문양과 왕실 의례와의 관계」, 『미술사학보』 48, 미술사학연구회, 2017, 7~34쪽.
- _____, 「조선시대 왕실 제기(祭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_____,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선원전 다례(茶禮)와 다기(茶器)」, 『한국학』 43,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149~192쪽.
- 김윤정, 「朝鮮初 酒器 조형 변화와 원인」, 『강좌미술사』 37, 한국미술사연구소, 2011, 127~150쪽.
- 박은순, 「조선후기 의례의 관화도식」, 『국학연구』 6, 한국국학진흥원, 2005.
- 송인희, 「조선 17세기 전반의 ‘假畫龍樽」」, 『미술사논단』 38, 한국미술연구소, 2014, 67~91쪽.
- 신승인, 「朝鮮後期 王室 宴享用 白磁 花樽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 유재빈, 「『園幸乙卯整理儀軌』圖式, 그림으로 전하는 효과와 전략」, 『규장각』 5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187~217쪽.
- 윤효정, 「조선전기 백자 규화배 葵花盃의 조형과 성격」, 『역사와 담론』 68, 호서사학회, 2013, 413~454쪽.
- _____, 「조선시대의 왕실 주기, 혜호배: 기록과 유물을 통한 실체와 조형의 복원」, 『미술사논단』 47, 한국미술연구소, 2018, 139~160쪽.
- _____, 「조선전기 官窯白磁의 器皿體系와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0.
- 이아름, 「1809년 진찬의례의 진작 기물 연구」, 『규장각』 5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359~388쪽.
- _____, 「1829년 기축진찬의례(己丑進饌儀禮)의 진작(進爵) 기물(器物) 연구」, 『문화재』 50,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64~81쪽.
- _____, 「19세기 궁중연향의 진작 과정과 기물 연구」,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이아름·이은주, 「1828년과 1848년 순원왕후의 진작기물 연구」, 『조선시대사학

- 보』 85, 조선시대사학회, 2018, 247~280쪽.
- 이희재, 「유교의례에서의 술」, 『종교연구』 54, 한국종교학회, 2009, 131~147쪽.
- 정원주, 「조선시대 백자편병(白磁扁瓶)의 연원과 성격」, 『미술사학보』 46, 미술사학연구회, 2016, 33~64쪽.
- 정희정, 「조선후기 의궤도설과 기록화를 통해서 본 연향 연구-음식상 배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5.
- _____, 「대한제국기 진연의 의례음식상 공간연출과 정치적 함의」, 『미술사학연구』 287, 한국미술사학회, 2015, 57~81쪽.
- 조경아, 「순조대 효명세자 대리청정시 정제의 연향양상」, 『효명세자연구』, 한국무용예술학회편, 2005.
- _____, 「조선후기 의궤를 통해 본 정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조희영, 「동아시아 壽老人圖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 한정수, 「여말선초 국왕 잔치의 문제와 宴享의 성립」, 『조선시대사학보』 62, 조선시대사학회, 2012, 5~34쪽.

Abstract

THE TYPES AND OPERATION SYSTEMS OF THE LIQUOR
VESSELS FOR ROYAL BANQUET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ED ON THE ANALYSIS OF UIGWE'S GIYONGDO

KOO HYEIN (KOO, HYE IN)

This article is a thesis that examines the background, types and format, and consumption and supply and demand systems of the liquor vessels of the royal family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beginning of Kiyongdo in the Yeonhyangui-gwe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found in the Junjackdosul of the national rituals in the early Joseon period. In addition, cups occupy the largest number of cycles in Uigwe, and the names are varied enough to reach a total of 34. In each name, the information such as model, composition, material, decoration, etc. are combined. Among them, Seobae and Okzan occupy the core in the hierarchy of the cup.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upply and usage patterns of liquor vessels, the liquor vessels were supplied from Nae-Ha, Hojo, Sanguiwon and Juwon. In addition, the type, material, and color of the liquor vessels are strictly classified according to the hierarchy of the participants.

Key Words : the Late Joseon Dynasty, Royal Banquet, Liquor Vessels, Uigwe, Jade cup, Silver bottle